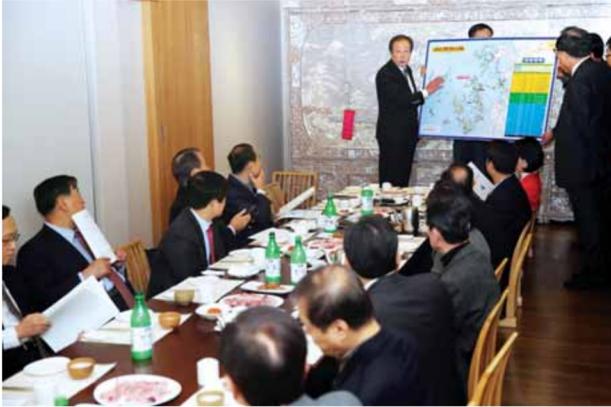


# '존폐 기로' 신안 조선타운 사할 건 투자유치



신안 조선타운 일반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압해읍 가룡리 일대 항공사진.



지난 10일 서울 경제인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나선 고길호 신안군수.

## ■ 신안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 위치도



신안 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신안군이 지난 2009년 지정후 지지부진 상태인 압해읍 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존치나, 폐지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07년도 전남도 조선산업 투자유치 기본 계획에 따라 가룡리와 신장리 등 압해읍 일원 부지 1335만㎡에 일반산업단지 조성할 계획으로 신안 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했다.

◇조선업 불황속 8년째 지지부진=당초 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6조3000억의 생산유발 효과와 3만여명의 고용효과, 400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기대했다. 또 신안지역은 물론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 2009년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 2010년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력을 지원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와 조선업의 불황에 의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이 사업에 참여한 주력 투자기업들이 퇴출되는 등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여기에 재무적 투자사로 참여한 부산 저축은행까지 파산하는 여파로 2013년 1월 서남개발(주)이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취소되는 등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없이 산업단지개발 사업이 멈춰있다.

산업단지 지정된 지역의 이주대상자는 북동쪽 11세대(27명), 가룡리 112세대(287명), 신장리 40세대(93명), 장감리 58세대(131명) 등 잠정 221세대(538명)이며 6481필지가 편입돼 있다.

산단지정 지역에는 산업임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 8년째 산단 개발사업 스톱 주민 재산권 제한 등 피해

### 고길호 군수 연내 해결 의지 기업인 직접 찾아 투자 호소

### 유치업종 변경 등 대책 모색 성과 안되면 해지·축소 검토

채취, 축목 식재 등은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군수가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이 지역민들이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있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귀농·귀촌 희망자들도 이곳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산업단지 추진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주택 신축, 축사 증축, 이동식 가설 건축물(농림수산용), 비닐하우스·퇴비사 설치, 어업권 연장허가 등에 대해서는 일부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투자기업 없으면 해지 또는 축소 방침=주민들은 지난 12일 압해읍 회담 토론회에서 산업단지 해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이날 고길호 군수는 "신안 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 지정까지 오랜 시간과 예산(민자 450억여원) 및 행정력 투입은 물론 가능하면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나야 하는 등 우선적으로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투자기업이 없을 경우

해지 또는 축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압해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보호를 위해 10년 넘게 지정됐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지하고, 앞으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산업단지 문제를 올해 안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고 군수는 압해 산업단지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에서 25명의 경제인들에게 직접 신안의 특색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 2017년 개통예정인 압해~압태간 '새천년 대교', 흑산 소정공항 건설과 십자형 도로망 구축 등 수도권 전국을 완벽하게 연결하는 등 신안의 비전과 투자여건 등을 설명하고, 신안산단에 투자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18~19일 이틀간 서울에서 중국 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는 등 신안 투자유치 활동 행보를 계속했다.

또 산업단지 지원사업에서는 이번 투자 설명회를 계기로 자체 투자 유치팀을 구성하고, 수도권 대기업 및 호남 항우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올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말 걸고 나섰다.

입주 기업에게는 임지 보조금과 시설보조금, 고용보조를 비롯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한편 신안군은 투자기업에서 개발면적 축소 및 유치업종 등을 변경 요구할 경우 전남도와 협의해 올해 안으로 개발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기업이 없을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산단 해지 또는 축소를 할 방침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안좌도서 식목일 기념 소나무 1000그루 심어

신안군은 지난 20일 안좌면 여흥리에 서 제7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식목일 행사는 섬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소나무(육송)가 자생해 신안군 중부권의 경관조성에 기여해 온 산림으로 지난 2012년 산불



신안군 공직자와 주민들이 지난 20일 안좌면 여흥리 야산에 피해를 입어 훼손된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지역이다.

이날 공무원과 지역 유관기관, 주민 등 450명은 2ha 면적에 소나무 1000 그루를 식재했다.

군은 주민들에게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작은 실천이 미래 세대의 경제적 자원은 물론 다양한 공익적·환경적 자원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전남도 브랜드 시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일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 61ha의 산림에 가시, 먼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관내 주민이 생산한 난대수종을 포함한 4만7000여 주의 나무를 식재하고 1100ha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안군 이세관 환경공원과장은 "주민과 숲이 공존하는 아름답고 가고 싶은 섬, 신안군의 산림경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11개 탐방로 '입산시간 지정제' 5월16일부터 시행

### 다도해국립공원 서부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최종관)는 오는 5월 16일부터 '입산시간 지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난 2013년부터 지리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시행된 '입산시간 지정제'는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까지로 제한하던 기존의 입산·통제기준을 탐방로별 목적지 및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탐방로 구간별 실정에 맞게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조도지구(하조도 등대~돈대봉) ▲흑산·홍도지구(흑산면사무소~마리재) ▲비금·도초지구(사목~목남) 등 11개 탐방로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15일까지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입산시간은 일출·일몰을 고려해 ▲하절기(3~10월) 오전 4~오후 4시 ▲동절기(11~2월) 오전 5~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박철희 탐방시설 과장은 "탐방로 구간별 산행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산행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체력저하와 기상악화 등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이용시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 문화 조성을 위해 입산시간 지정제 운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신안군 매주 수요일 '허가민원 상담의 날' 운영

신안군이 복잡한 인·허가업무 관련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들을 위해 '허가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신안군은 매주 수요일 관내 건축사와 허가부서 공무원 합동으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농지전용, 환경관련 등의 업무를 상담하고,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

군은 지난 2월 종합 민원실에 복합민

원 상담을 신설해 '허가민원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행의 후속 조치로,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민원서비스를 통해 주민 편의 증진의 고품격 행정을 실현하고자 '허가민원 상담의 날'을 마련했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종합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61-240-8291)로 상담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면 된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2007년 개정

##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	------------------------------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	---------------------------------------------------------------------

##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령고등학교 옆)

